

‘ANY’와 ‘아무’에 관한 분석*

김 한 승

【국문요약】 영어 ‘any’는 일차술어논리에서 ‘every’, ‘all’, ‘each’ 등과 유사하게 다루어지지만, 자연언어에서 이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특히 ‘any’는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언어학자들은 이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기존의 언어학적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벤들러가 ‘any’의 논리적 특성에 관해서 오래 전에 제시한 철학적 통찰에 주목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any’는 벤들러가 ‘선택의 자유’라고 부르는 특성을 일차적으로 가지며 파인이 ‘임의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any’의 논리적 특성이 한국어 ‘아무’의 분석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는 점을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철학적 함축을 갖는다고 생각하며, 그 한 가지 사례로 보편 일반화 규칙과 서문의 역설이 제기하는 문제가 ‘any’의 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조망될 수 있음을 보인다.

【주요어】 부정극어, 벤들러, 임의의 대상, 보편 일반화, 서문의 역설

접수일자: 2014.05.15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4.06.05 게재확정일: 2014.06.15

*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유익한 논평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긴다.

1. 들어가는 말

영어를 사용하여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all’, ‘every’, ‘any’, ‘each’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벤들러(Vendler 1962)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이 표현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들 표현 중에서 벤들러는 ‘any’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필자가 보기에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수, 수동, 동철 세 사람이 F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포함될 것이다.

- (1) 영수는 F이다. 수동은 F이다. 동철은 F이다.
- (2) 영수는 F이지 않다. 수동은 F이지 않다. 동철은 F이지 않다.
- (3) 적어도 한 명은 F이다.
- (4) 적어도 한 명은 F이지 않다.

(1)을 부정한 것이 (4)이고, (2)를 부정한 것이 (3)이다. 또한 (1)은 (3)을 함의하고, (2)는 (4)를 함의한다. 그런데 (1)과 (2)에는 고유명사가 사용되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all’, ‘every’, ‘any’, ‘each’를 이용하여 (1)을 표현해야 한다면 다음이 그 후보가 될 것이다. (별표*)는 해당 문장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음을 의미한다.)

- (5) All are Fs.
- (6) Everyone is F.
- (7) *Anyone is F.
- (8) Each one is F.

그리고 (5)~(8)에 'not'을 결합하면 다음을 얻는다.

- (9) Not all are Fs.
- (10) Not everyone is F.
- (11) Not anyone is F. (No one is F.)
- (12) *Not each one is F.

(9)와 (10)은 (4)를 의미하는데 반해, (11)은 (2)를 의미한다. 일차 술어논리에서 전칭 문장을 부정하면 부분 부정을 얻기 때문에, 'all'과 'every'는 일차술어논리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표현한다. 하지만 'any'는 그렇지 않다.¹⁾ (11)이 (2)를 의미하기 때문에²⁾, (7)은, 만약 문법적 문장이었다면, (3)을 의미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다. 왜 'any'는 (7)처럼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 어려운가? 논리식으로 설명해 보자면, $\forall x(\sim Fx)$ 라는 식이 표현하는 문장에는 'any'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부정, 즉 $\exists x(Fx)$ 를 표현하는 데에는 'any'를 사용할 수 없다. 왜 그런 제약이 생겨나는가?

'anyone'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이 표현은 모든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것을 가리킬 것이다. 'anyone'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술만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서술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anyone'은 특정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면 어떨까? 이도 마

1) (8)과 (12)에서 보듯이, 'each'라는 표현도 'all'과 'every'와는 다른 점이 있다. (8)은 문법적이지만 (12)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each'는 'any'와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점을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any'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2) (11)이 부분 부정을 의미하는 문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Not anyone can drive a livestock lorry.'는 부분 부정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전형적인 맥락에서 (11)은 전체 부정을 의미한다.

찬가지이다.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술만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서술은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다시 말해서 ‘anyone’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술밖에는 할 수 없다는 점은 기이하게 여겨진다. 필자는 이를 “‘any’의 퍼즐”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퍼즐은 한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무도 F가 아니다.’는 문장은 성립하지만 ‘아무가 F이다.’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무도 F가 아니다.’는 문장이 뜻하는 바와 모순인 문장은 ‘적어도 한 명이 F이다.’가 된다. 즉 ‘아무가 F이다.’가 제대로 된 문장이었다면, 이 문장은 ‘적어도 한 명이 F이다.’는 문장과 같은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왜 ‘아무가 F이다.’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가? ‘아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가?

영어의 ‘any’와 한국어 ‘아무’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향을 갖는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s, 줄여서 NPI)라고 부르는데, 부정극어에는 ‘any’와 ‘아무’ 이외에도 ‘yet’, ‘ever’, ‘미처’, ‘밖에’ 등이 있다. 언어학에서는 이런 부정극어들이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만드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겨 이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학에서는 이 문제를 ‘부정극어 허가조건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any’가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not’과 같은 부정어가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문문, 명령문, 조건문, 또는 양상성을 드러내는 문장에서 ‘any’는 부정어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3)과 같은 문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3) Any doctor will tell you that Stopsneeze will help.

(14) *Any doctor told you that Stopsneeze helped.

이에 비해 (14)는 문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어 '아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15)는 성립하지만 (16)는 자연스럽지 않다.

(15) 아무 의사나 그렇게 말할 것이다.

(16) *아무 의사나 그렇게 말했다.

벤들러(Vendler 1962)는 (13)과 같은 문장에서 드러나는 'any'의 용법에 주목하여 이를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줄여서 FC)라고 명명한 바 있다. 즉 'any'는 부정극어로서 분류될 수 있는 측면과 선택의 자유를 나타내는 단어로 분류될 수 있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편의상 이 둘을 'NPI-any'와 'FC-any'라고 구분하자. 언어학자들이 이 둘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any'의 의미가 중의적(ambiguous)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any'의 의미가 중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³⁾ 전자는 'any'가 서로 다른 두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견해이고, 후자는 NPI-any와 FC-any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전통적으로 언어학자들은 'any'의 중의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주로 논의의 초점을 NPI-any가 허용되는 조건의 특성을 찾는 데 두었다.⁴⁾ 하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이러한 견해는 NPI-any가 나타

3) 철학계에서는 'ambiguous'를 '애매한'으로 번역하고 언어학계에서는 '중의적'이라고 번역한다. 또한 철학계에서는 'vague'를 '모호한'으로, 언어학계에서는 '애매한'으로 번역한다. 두 학계 간의 소통을 통해서 통일화될 필요가 있다.

4) 국내의 연구를 놓고 보자면, 지금까지 언어학자들(남승호 (1998), 윤영은 (2000), 최기용 (1998), 홍민표 (2010))은 주로 'any'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제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아무'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이 문제는 언어학자와 철학자 양쪽의 공통적 관심거리로 제시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양 진영에서 느끼는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려는 시도이다.

나는 맥락들을 기술적으로 열거하고 이것들의 공통점을 드러내려고 할 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이런 견해는 (11)에서처럼 ‘any’와 ‘not’이 결합할 때 부분 부정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필자가 보기에 벤들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올바른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벤들러의 통찰은 이후 언어학자들이 부정극어의 특성에 관해서 쏟아 놓은 다양한 목소리 속에 묻혀서 사라져 버렸다. 필자는 ‘any’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특성이 고전적 일차술어논리로는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필자는 한국어 ‘아무’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이 의심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생각이 성공적으로 제시된다면 논리철학의 여러 주제에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던져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⁵⁾ 그 중 하나는 논리 변항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보편 일반화’(universal generalization, 줄여서 UG)라고 부르는 추론 규칙을 이해하는 방식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서문의 역설’(preface paradox)과 같은 퍼즐을 바라보는 그럴 듯한 한 가지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절에서는 ‘any’와 같은 부정극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들을 조망하면서 기존 분석들이 ‘any’의 논리적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겠다. 3절에서는 한국어 ‘아무’에 관한 관찰을 통해서 ‘any’가 제기하는 퍼즐이 해소

5) 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펼치는 주장이 대단히 야심찬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본 논문이 내놓는 분석은 ‘any’와 ‘아무’의 논리적 특성을 밝히는, 보다 큰 기획의 출발점이다. 필자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본 논문의 분석이 올바른 방향에 서 있다는 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되는 방식을 제시하겠다. 이를 위해서 논리 변항에 대응하는 대상으로 '임의의 대상'(arbitrary object)을 상정해야 한다는 파인(Kit Fine)의 견해를 소개하고 지지할 것이다. 4절에서는 한국어 '아무'와 영어 'any'의 논리적 특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시하겠다.

2. 기존의 분석들

벤들러는 1962년 논문에서 'all', 'every', 'any', 'each'에 관한 독창적인 고찰을 제시하였다. 그는 일차술어논리가 이런 표현들을 모두 몽뚱그려 보편 양화사(universal quantifier)로 간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들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그가 고찰한 'any'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any'는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나타낸다. 사과 다섯 개를 담고 있는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 먹으라는 취지로 "아무 것이나 꺼내 먹어라/Take any one of them."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과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말을 듣고 사과 하나를 이미 꺼내 든 사람들과 우리는 "그는 아무 사과를 선택했다/He took any one."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과를 이미 선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any'는 많고 적음에 무차별적(indifference of size)이다. 앞의 예에서 사과를 꺼내 먹으라는 말을 듣고 한 개의 사과를 꺼낼 수도 있고 두 개의 사과를 꺼낼 수도 있다.

셋째, 'any'는 불완전성(incompleteness)을 나타낸다. 앞의 예에서 바구니에 담겨 있는 사과 중 하나나 둘, 또는 셋을 꺼내 먹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섯 개 모두 먹는 것은 '아무 것이나 꺼내 먹어라'는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점에서 ‘any’는 ‘every’와는 다르다.

넷째, ‘any’는 사실에 대한 예측이나 명령이 아니라 백지 보증서 (blank warranty)나 제안을 나타낸다. 누군가 앞에 등장한 (13)을 말했다고 하자.

(13) Any doctor will tell you that Stopsneeze will help.

이때 그는 모든 의사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의사가 누구인지를 정할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몫이다. 벤들러는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any’가 나타내는 첫 번째 특성(선택의 자유)과 세 번째 특성(불완전성)이 결합된 결과이다. (13)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사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한 의사가 이러저러한 취지의 말을 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모든 의사에 대해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ny’의 불완전성이 드러나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any’가 갖고 있는 선택의 자유가 드러난다.

하지만 벤들러의 이러한 통찰은 이후 언어학에서 사라져 갔다. 그 이유는 ‘any’가 포함된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그의 분석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우리가 ‘He took any one.’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선택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벤들러는 말한다. 하지만 (17)와 같이 평서문에서도 ‘any’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LeGrand 1975).

(17) She bought anything she need at Carson’s.

이 문장에 등장하는 그녀는 필요한 것을 이미 선택했다. 그럼에도 'an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문장에 대해서 벤들러는 비문법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17)는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문장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다.

또한 벤들러가 제시한 기준은 부정문에 등장하는 'any'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듯하다. 예를 들어, 'She did not see any birds.'라고 말할 때 어떤 선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벤들러는 문법적으로 적합한 이 문장에 대해서도 비문법적이라고 말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언어학에서 관심의 초점은 벤들러가 제시한 FC-any가 아니라 NPI-any로 옮겨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any'라는 표현이 허가되는지가 언어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라더소는 주목해야 할 제안을 한 바 있다(Ladusaw 1983). 그는 'any'와 같은 부정극어가 허가되는 문맥을 단조감소 함수(monotone decreasing function)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단조감소 함수란 입력값, 즉 정의역의 값이 증가할 때 출력값, 즉 치역의 값이 감소하고 정의역의 값이 감소할 때 치역의 값은 증가하는 함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f(x)=2/x$ 는 단조감소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의역의 값이 증가할 때 치역의 값 역시 증가하는 함수는 단조증가 함수라고 한다. 이를 언어에 적용해 보자.

(18) 내 친구는 아침에 사과를 먹는다.

(19) 내 친구는 아침에 과일을 먹는다.

(18)은 (19)를 함의한다.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두 문장의 함의 관계를 살펴보자.

(20) 내 친구는 아침에 아무 사과도 먹지 않는다.

(21) 내 친구는 아침에 아무 과일도 먹지 않는다.

이 경우 (20)이 (21)을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21)이 (20)을 함의한다. 어떤 것이 사과라면 그것은 과일임을 함의한다. 이 함의 관계의 방향은 (18)과 (19)에서 변화 없이 나타난다. ‘사과’를 포함하는 (18)이 ‘과일’을 포함하는 (19)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8)과 (19)는 단조증가의 특성을 갖는 문맥이다. 반면 (20)과 (21)은 그 함의 관계의 방향이 역전된다는 점에서 단조감소의 특성을 보인다. (18)~(19)와 비교하여 (20)~(21)을 단조감소 문맥으로 만드는 표현은 ‘않는다’는 표현이다.

라더소는 ‘하향함의’(downward entailment)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이를 설명한다. 하향함의란 단조감소와 유사한 개념이다. 어떤 표현이 사용되는 문맥이 함의의 관계를 뒤바꾸는 경우에 이 표현이 하향함의를 갖는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정어는 하향함의를 가지며 ‘any’와 ‘아무’는 하향함의를 갖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라더소는 부정극어가 허가되는 조건을 하향함의 문맥이라고 주장한다. 라더소의 주장 이후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를 발전시켜 부정극어가 허가되는 조건을 좀 더 정교화해 나갔다(Zwarts 1993).

하지만 ‘any’와 ‘아무’라는 표현이 하향함의를 갖는 문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제기한 퍼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any’와 ‘아무’가 어떤 논리적 특성을 갖기에 이런 표현들이 하향함의 문맥에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부정극어가 하향함의를 갖는 문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심지어 사소한 진리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후건부정(*modus tollens*)이라는 논증 형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후건부정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후건부정] 내 친구가 아침에 먹는 것이 사과라면 그것은 과일이
다. 하지만 그것은 과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
과가 아니다.

부정어가 하향함의 문맥을 갖는 것은 후건부정이 타당한 논증 형식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어떤 표현이 사용될 때 부정어가 동반된다면 이 표현이 하향함의 문맥에서 사용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왜 'any'와 '아무'라는 표현이 하향함의 문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지 하는 점이다. 라더소의 제안이나 그 이후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정교화된 부정극어 허가조건도 우리의 퍼즐을 풀어줄 수는 없다.

카드몬과 랜드맨(Kadmon & Landman 1993)은 부정극어 허가조건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FC-any와 NPI-any를 통합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제안에 따르면 'any + 보통명사'는 'a(n) + 보통명사'와 그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 이 둘이 구별되는 점은 'any'가 갖고 있는 화용론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 'any bird'와 'a bird'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 후자에 대응하는 외연으로 우리는 이러저런 새들의 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전자는 이 새들의 집합을 좀더 확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a bird'에 속하는 것으로 제비는 명백하지만 펭귄이 이에 속하는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다. 반면 'any bird'는 새의 영역을 'a bird'보다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즉 그들에 따르면 'any'는 외연 확대(domain widening)를 요청한다.

이렇게 외연 확대를 하고 나면 왜 (22)가 (23)을 함의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22) I did not see any bird.

(23) I did not see a bird.

펭귄과 같이 전형적인 새인지가 의심스러운 것까지 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새를 보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4)가 (25)를 함의하는 이유 역시 외연 확대로 설명될 수 있다.

(24) Any owl hunts mice.

(25) An owl hunts mice.

앞의 (22)~(23)은 NPI-any의 함의 관계를 나타내고 (24)~(25)는 FC-any의 함의 관계를 나타낸다. 외연 확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NPI-any와 FC-any 간의 통합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몬과 랜드맨은 (22)가 (23)을 함의하는 이유를 ‘강화’(strengthen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any’가 허가되는 조건은 외연 확대가 더 강한 명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2)는 (23)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더 강한 문장인데, 이러한 강화는 ‘any’의 외연 확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24)와 (25)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에 다음 (26)처럼 ‘any’가 허용되지 않는 문장을 보자.

(26) *I have any potatoes.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문장에서 ‘any’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

는 외연 확대가 강화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Kadmon & Landman 1993: 370). (26)에서 외연 확대가 일어나면 (27)과 같은 의미일 것인데, (27)은 (28)을 함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분석이다.

(27) I have potatoes of SOME kind (cooking or other).

(28) I have cooking potatoes.

하지만 이들의 분석 역시 우리의 퍼즐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23)에서 진정으로 외연 확대가 일어났다면 왜 (26)이 (28)을 함의하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26)에서 외연 확대가 일어난 것이 왜 (27)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감자'의 외연에 요리에 쓸 수 있는 감자뿐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감자까지 포함한다면, 내가 그런 감자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요리할 수 있는 감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함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26)이 '내가 모든 감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27)이 (26)의 외연 확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외연의 확대와 외연 후보의 확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 둘은 구별되어야 한다.

[외연의 확대] $\{x|(x=\text{요리할 수 있는 감자}) \text{ 또는 } (x=\text{먹을 수 없는 감자})\}$

[외연 후보의 확대] $\{x|x=\text{요리할 수 있는 감자}\}$ 또는 $\{x|x=\text{먹을 수 없는 감자}\}$

만약 (26)이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문장이었다면, (26)에서 일어난

것은 외연의 확대가 아니라 외연 후보의 확대라고 해야 한다. (26)에서 ‘any’의 외연 후보를 확대한 것이 (27)이고, 이로부터 (28)이 따라 나오지 않는 것은 선언문으로부터 하나의 선언지를 이끌어내는 논증 형식(‘A 또는 B. 따라서 A.’)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ny’라는 표현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외연의 확대를 낳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외연 후보의 확대를 낳는가? 부정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는 외연 후보의 확대가 일어나고 FC-any가 사용되는 맥락에서는 외연의 확대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우리의 퍼즐은 그대로 남는다.

3. 임의의 대상

일차술어논리가 ‘any’라는 표현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벤들러의 통찰로 돌아와 보자. 예를 들어 다음 문장 (29)를 일차술어논리로 표현한다면 (30)과 같다.

(29) For any natural numbers x and y , if x is bigger than y , x is not identical to y .

(30) $\forall x \forall y [(x > y) \rightarrow (x \neq y)]$

그렇다면 ‘any’는 다른 양화사 ‘all’ 또는 ‘every’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벤들러가 지적했듯이 이는 ‘any’가 갖고 있는 논리적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여기서 ‘any’라는 표현이 꾸며주는 변항 x 와 y 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일차술어논리에 따르면 ‘any’는 전칭양화사로 표현된다. (29)에서 처음 등장하는 x 와 y 가 가리키는 것은 임의의 자연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변항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29)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등장하는 x 와 y 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킬 수 있다. 즉 두 변항이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수 3과 5가 모두 자연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두 수로 구별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변항 x 와 y 는 그 어떤 자연수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지 3과 5처럼 자연수에 속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두 변항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킬 수 있다. x 와 y 와 서로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 두 점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파인은 변항의 의미론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율배반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두 변항은 동일한 의미론적 역할을 갖는다는 주장과 동시에 두 변항은 서로 다른 의미론적 역할을 갖는다는 주장 모두 성립한다(Fine 2003, pp. 606-607). 필자는 이런 이율배반적 요소가 'any'의 퍼즐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any F'는 F인 그 어떤 것도 가리키지만 F인 모든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any F'가 'each F'와 같이 F인 모든 것을 분배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any'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까? 'any'의 퍼즐은 이 문제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는 'any'가 가리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인이 제안한 '임의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개별적인 대상들 외에도 임의의 대상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개별적인 사람들 외에도 임의의 사람이 있고, 개별적인 감자들 외에도 임의의 감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임의의 대상은 치역에 있는 개별적인 대상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

는 속성을 갖는다. 임의의 수는 짝수이거나 홀수이고, 임의의 사람은 유한한 목숨을 갖는다. 한편 임의의 수가 소수는 아니고, 임의의 사람이 철학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수 중에는 소수가 아닌 것이 있고, 개별적인 사람 중에는 철학자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Fine 1983, p. 55).

파인도 인정하듯이 개별적인 대상과 별도로 임의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별로 없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철학자라면 버클리(Berkeley)부터 프레게(Frege)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목소리로 임의의 대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파인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임의의 대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임의의 대상에 대한 비판 중에서 다음 두 가지가 가장 흔히 제기되는 비판일 것이다.

첫째 비판은, 버클리가 제기한 비판으로, 임의의 대상은 모순적인 두 속성을 갖게 되므로 그런 대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의의 수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귀류법 논증이 성립한다. ‘임의의 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짝수이거나 홀수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의의 수는 짝수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모든 수는 짝수이어야 하는데 이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임의의 수는 홀수일 수도 없다. 따라서 임의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은 임의의 수뿐 아니라 임의의 한국사람, 임의의 감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파인은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총칭적 귀속의 원리’(principle of generic attribution)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이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총칭적 귀속의 원리란 치역에 있는 개별적인 대상들이 어떤 속성을 공통으로 가질 때 임의의 대상 역시 그 속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에 속하는 각각의

수는 모두 '짝수이거나 홀수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원리는 임의의 수 역시 '짝수이거나 홀수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다. 임의의 수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임의의 수가 짝수라는 것이 참이거나 아니면 홀수라는 것이 참이다. 임의의 수가 짝수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총칭적 귀속의 원리에 따라 자연수 집합에 속하는 모든 수가 짝수라고 해야 할 듯 한데, 이는 거짓이다. 이것이 바로 버클리 비판의 핵심이다. 하지만 파인은 총칭적 귀속 원리를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임의의 수가 짝수라는 가정으로부터 모든 자연수가 짝수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데에 총칭적 귀속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짝수가 아닌 자연수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임의의 수가 홀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막기 위해서는 총칭적 귀속 원리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임의의 수가 '짝수이거나 홀수임'이라는 속성을 가지면서 '짝수임' 또는 '홀수임'이라는 속성은 갖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는 모호한 표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검붉은 것을 두고 검거나 붉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검다고 말하거나 또는 붉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그럴 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인이 첫 번째 비판을 성공적으로 회피하고 총칭적 귀속 원리에 대한 적절한 제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를 검토하지는 않겠다. 다만, 앞으로 보듯이, 첫 번째 비판은 보편 일반화 규칙(UG)을 과도하게 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둘째 비판은 임의의 대상이란 존재가 형이상학적으로 기이하다는 것이다. 임의의 대상이 개별적인 대상과 존재론적 지위가 다르다면,

도대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인가? 이런 비판에 대한 파인의 대답은 간단하다. 임의의 대상은 개별적인 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수에 대한 유명론적 입장에 비유한다. 나무나 돌이 존재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평균적인 남자’가 31세에 결혼을 하고 1.2명의 자녀를 둔다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리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평균적인 남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테넌트(Tennant 1983, p. 86)는 이처럼 존재론적 개입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임의의 대상에 관한 이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서 임의의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복잡한 기호를 간단히 할 수 있다거나 임의의 대상을 도입하는 것이 수학자들의 관습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파인은 임의의 대상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론적 장점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 비판에 답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의의 대상을 상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론적 장점이 무엇일까? 파인은 악명 높은 당나귀 문장을 사례로 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의미론적 분석을 위해서는 임의의 대상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나귀 문장이란 다음 문장 (31)을 말한다.

(31) Every farmer owns a donkey and he beats it.

당나귀 문장이 제기하는 문제는 (31)에 등장하는 ‘he’와 ‘it’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냐는 것이다. 파인은 이에 대해서 ‘he’는 임의의 농부를, ‘it’은 이 임의의 농부가 소유한 임의의 당나귀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Fine 1983, pp. 74-75).

필자 역시 파인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대상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에는 이론적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의의 대상은 일종의 추상적 대상으로 존재한다. 개별적인 문학 작품들이 존재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문학 작품의 장르를 상정한다. 문학 장르는 개별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문학 작품들이 없다면 문학 장르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르의 존재는 개별적인 문학 작품의 존재에 의존해 있다. 임의의 대상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임의의 한국 남자는 개별적인 한국 남자들의 존재에 의존적이다. 하지만 임의의 한국 남자는 개별적인 한국 남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의의 대상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에는 어떤 이론적인 장점이 있는가? 필자 역시 임의의 대상을 상정하면 당나귀 문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파인의 이러한 제안은 소략하기에 이 제안이 당나귀 문장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지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다. 그 대신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임의의 대상을 도입하고자 한다.⁶⁾

임의의 대상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주요 비판과 이에 대한 파인의 대답을 염두에 두고 'any'와 '아무'라는 표현을 둘러싼 언어 현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자. 필자는 'any'와 '아무'라는 표현이 임의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통해서 'any'의 퍼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한국어 '아무'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주목하려 한다.

'any'와 '아무'라는 두 단어는 서로를 번역하는 관계를 갖는다.

6) 개별적인 대상과는 별도로 임의의 대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방식이란 무엇인지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가는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임의의 대상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하지만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는 보조사가 있기 때문에 두 표현은 서로를 온전히 번역해 내지 못한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보여주는 차이점이다.

(32) 그는 아무 사과도 먹지 않았다.

(33) 그는 아무 사과나 먹지 않았다.

(32)는 영어 문장 ‘He did not eat any apples.’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아무’와 ‘any’는 서로 온전히 번역된다. 하지만 (33)은 ‘any’를 포함하는 간단한 영어 문장으로 온전히 번역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32)가 다음 문장 (34)를 함의하지만 (33)은 (34)를 함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34) 그는 잘 익은 사과를 먹지 않았다.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33)에 등장하는 ‘그’가 사과를 먹었다는 것을 안다. (33)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어떤 사과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먹었다는 것이다. 이는 ‘any apples’를 포함하는 영어 문장으로는 온전히 표현되지 않는다. (32)와 (33)의 차이는 보조사 ‘도’와 ‘나’에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가 보조사 ‘도’와 결합되면 전칭 부정을, 보조사 ‘나’와 결합하면 부분 부정을 의미하게 된다. 즉 ‘아무’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보조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한국어는 보조사를 갖고 있기에 두 의미가 구별되지만 보조사가 없는 영어에서는 이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아무’란 표현이 보조사 ‘도’와 ‘나’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생각해 보자.

- (35) *그는 아무 사과도 먹었다.
- (36) 그는 아무 사과나 먹었다.
- (37) 그는 잘 익은 사과도 먹지 않았다.
- (38) *그는 잘 익은 사과나 먹지 않았다.
- (39) 그는 잘 익은 사과도 먹었다.
- (40) *그는 잘 익은 사과나 먹었다.

(35)와 (37)은 '아무'가 보조사 '도'와 결합할 때 부정극어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반면 (36)처럼 보조사 '나'와 결합될 때에는 '아무'를 부정극어로 보기 어렵다. (36) 역시 'any apples'를 포함하는 영어 문장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33)은 올바른 문장이지만 (38)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33)과 (38)이 보여주는 점은, 부정어와 함께 쓰일 때 보조사 '나'는 '아무'와 결합하여 올바른 문장을 만들지만 ('아무'란 표현 없이) 일반 명사와 결합해서는 비문법적 문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보조사 '도'는 '아무'와도 결합해도 올바른 문장을 만들고 일반 명사와 결합해도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더군다나 (39)가 보여주듯이 보조사 '도'는 긍정적 문맥에서 일반 명사와 결합하여 올바른 문장을 만든다. 반면 (38)과 (40)에서 보듯이 '나'는 일반 명사와 결합하면 긍정적 맥락에서든 부정적 맥락에서든 비문법적 문장을 만드는데, 이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익은 사과'는 '아무 사과'와 달리 사과의 특정한 성격을 규정한다. 보조사 '나'는 '여럿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과 중에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과와는 결합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무'는 보조사 '도'보다 보조사 '나'와 보다 잘 결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조사 '나'가 보조사

‘도’보다 ‘아무’의 특성을 더 잘 포착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조사 ‘나’의 의미를 고려할 때 ‘아무나’의 ‘아무’는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는 대상’이다. 어떤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허용될 때, 한편으로 그 대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선생님의 집을 방문한 학생에게 사과를 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선생님은 ‘아무 사과나 먹어라.’고 말하면서 학생에게 사과를 선택할 자유를 허용한다. 학생은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선택한다.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선택의 자유를 행사했다. 벤들러가 지적했듯이, 사과를 선택할 자유를 행사한 이후 학생에게 이 자유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아무 사과를 먹었다.’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그가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선택했다면 선택의 결과인 ‘잘 익은 사과’와 보조사 ‘나’를 결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40)은 잘못된 문장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생은 자신에게 허용된 선택의 자유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잘 익은 사과처럼 특정한 사과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사과를 집을 수 있다. 사과를 집어 들었으나 특정 사과를 선택하지는 않은 것이다. (36)은 바로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즉 다음 (41)을 생각해 보자.

(41) 선생님께서는 아무 사과나 (마음대로 골라)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학생은 (사과를 고르지 않고) 아무 사과나 먹었다.

(41)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잘못된 문장이 아니다. 이 점은 ‘아무’가 갖는 중요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를 다음과 같은 문장 (42)와 비교해 보라.

- (42) *선생님께서서는 제일 잘 익은 사과를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학생은 제일 잘 익은 사과를 먹었다.

이 문장이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두 번 등장하는 '제일 잘 익은 사과'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데도 '했지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41)의 '아무 사과'는 한정기술구나 고유명사처럼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과'가 여러 언어학자들의 제안처럼 'an apple'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없다. 그런 의미라면 (41)은 분명 잘못된 문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무 사과나 먹어라.'는 선생님의 제안을 따라 잘 익은 사과 하나를 골라 먹은 학생을 두고 (33)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흥미롭게도 '아무 사과나' 먹으라는 말에 호응하는 행위는 '아무 사과나 먹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 둘은 양립가능하다.

- (33) 그는 아무 사과나 먹지 않았다.
(43) 그는 잘 익은 사과를 먹었다.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44) 선생님께서 아무 사과나 마음대로 골라 먹어도 된다고 하자 학생은 아무 사과나 먹지 않고 원하는 사과를 골라서 먹었다.

이 문장이 표현하는 상황에서 학생은 선생님의 허락에 호응하여 자신이 보기에 가장 잘 익은 사과를 골랐기에 결국 아무 사과나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44)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42)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 ‘아무 사과’가 특정한 사과를 지칭한다면 (44)는 잘못된 문장이 되고 만다.

‘아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떤’이라는 표현과 비교해 보면 더 잘 드러난다. ‘아무’와 ‘어떤’은 다음과 같이 전칭 부정문에서 사용되어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45)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 (46)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와 ‘어떤’이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령문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47) 아무 것이나 먹어도 좋다.
- (48) 어떤 것이나 먹어도 좋다.

하지만 ‘아무’와 달리 ‘어떤’은 부정문에서 보조사 ‘나’와 결합하지 못한다.

- (49) 아무 것이나 먹지 마라.
- (50) *어떤 것이나 먹지 마라.

반면 ‘어떤’은 ‘그’와 같은 표현으로 한정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아무’는 그렇지 않다. 앞에 등장한 (47)과 (48)에 ‘그’를 첨가해 보라.

- (51) *그 아무 것이나 먹어도 좋다.
- (52) 그 어떤 것이나 먹어도 좋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아무'라는 표현이 갖는 논리적 성격을 규정짓는 데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럴 듯한 주장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는 화자가 청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상을 나타내며 이 대상은 그런 의미에서 임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임의의 대상은 특정한 사물과는 달리 '그'와 같은 표현을 이용하여 지칭될 수 없다. '아무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임의의 사람을 나타내고, '아무 것'은 특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것을 나타낸다.

벤들러는 'any'가 나타내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람과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 간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앞의 문장 (44)는 이런 역동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선생님은 '아무 사과'라는 표현을 통해 선택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 때문에 선생님은 '아무 사과'가 갖는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 구체적인 특성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진정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사과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를 행사한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이렇게 행사한 결과 얻어진 사과는 더 이상 '아무 사과'가 아니다. 그 사과는 구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학생은 이 구체적인 특성 때문에 바로 그 사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생에게 허용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구니에 담겨 있는 사과 중에 학생이 먹고 싶은 사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자. 그 어떤 사과도 자신이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학생은 선생님의 친절한 제안에 호응하고자 그 중 하나를 손에 잡히는 대로 골랐다. 이 경우 학생은 자신에게 허용된 선택의 자유를 진정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아무 사과'를 골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 (53)은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는 (44)와 대비된다.

(53) 선생님께서 아무 사과나 골라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학생은 아무 사과나 먹었다.

필자는 (44)와 (53)이 ‘any’의 퍼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선 ‘아무’가 임의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 표현들이 긍정적인 맥락의 평서문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한다. 왜 그런가? 긍정적인 평서문은 한 대상에게 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임의의 대상은 구체적 특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이러저러한 구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명령문이나 조건문 등에서는 ‘any’와 ‘아무’가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이 표현들이 임의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잘 설명된다. ‘아무 것이나 먹어도 좋다.’는 문장이나 ‘Any doctor will tell you that Stopsneeze will help.’라는 문장이 그런 예이다. 이 경우 화자는 임의의 것 또는 임의의 의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나 구체적인 의사를 제시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몫인 것이다. 즉 이런 명령문이나 조건문에서는 ‘any’와 ‘아무’가 사용되는 데 제약이 없다.

이제 ‘any’의 퍼즐, 즉 왜 ‘any’와 ‘아무’는 평서문에서 부정어와만 결합하는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53)과 같은 상황, 즉 화자에 의해서 허용된 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53)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왜 학생은 아무 사과나 먹었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음 (54)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54) 학생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사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후보 중에서 구별되는 속성을 가진 것을 선택해야 한다. (54)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선택의 후보 중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만약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있었다면 더 이상 '아무'라는 표현으로 그 대상을 가리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벤들러의 통찰 중 하나이다. 선택의 자유를 제시하는 '아무'는 그 자유가 행사될 때 사라져야 한다. 오직 그런 특성을 가진 대상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즉 전칭 부정문의 맥락에서 '아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FC-any는 NPI-any에 우선하며 후자는 전자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보편 일반화 규칙과 서문의 역설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any'와 한국어 '아무'의 의미를 언어적 현상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any'와 '아무'는 파인이 '임의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any'와 '아무'의 주요 의미는 선택의 자유이며 부정극어로서의 역할은 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철학적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필자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보편 일반화 규칙(UG)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UG 규칙을 사용한 추론

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UG] 임의적으로 선택된 대상을 ‘철수’라고 하자. 철수는 F라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대상은 F라는 속성을 갖는다.

여기서 ‘철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이 아니라 임시 이름(provisional name)이다. 흔히 UG 규칙의 제약 사항으로 말해지는 것은 이 임시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필자는 UG를 적용하는 데에는 이보다 엄격한 제약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논의 영역에 속한 것들 중에서 아무 것이나 선택하면서 그것에 자유롭게 임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임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유명을 가진 대상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구별되는 두 대상에 각각 고유명을 부여하여 이 둘을 구별하는 것과 임의의 대상에 임시 이름 두 개를 부여하여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다.⁷⁾

UG 규칙을 적용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제약 사항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례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반화를 위한 한 가지 사례로 ‘서문의 역설’(preface paradox)이라는 문제를 검토하겠다(Makinson 1965). 서문의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꺼운 철학 책 한 권의 집필을 마치고 서문을 쓰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는 자신이 방금 끝마친 이 책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했고 검토했으므로 각각의 문장이 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그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두꺼운 책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문장들 중 적어도 하나의 잘못된 문장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그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서문에 쓰는 이유이다. ‘이 책

7)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김한승 & 김명석 (2013)을 참조.

에 있는 실수는 순전히 저자의 책임입니다.' 서문의 역설은 저자가 어떻게 이 두 믿음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에서 생겨난다. 즉 저자는 책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 각각이 참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중 적어도 하나의 문장은 거짓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두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두고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서문의 역설을 서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해 보겠다.

[PL1] 이 책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 중 임의의 문장을 'S'라고 부르자. 이 책의 저자는 S가 참이라고 믿는다.

[PL2] 그는 이 책을 이루는 모든 문장이 참이라고 믿는다.

[PL3] 그는 이 책을 이루는 문장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고 믿는다.

역설은 이 세 문장 모두 참인 것 같지만 [PL2]와 [PL3]이 서로 모순이라는 데에서 발생한다. [PL2]는 [PL1]에 UG 규칙을 적용하여 얻어진 것이다. 즉 책을 이루는 각각의 문장이 '저자가 참이라고 믿음'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면 UG 규칙에 의해서 모든 문장이 그런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PL2]를 [PL1]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다면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UG 규칙이 위의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필자는 'any'와 '아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이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 서문의 역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55) A: 책 중에서 아무 문장이나 말해 보세요. 나는 그 문장이 참이라고 믿습니다.

B: 이렇게 많은 문장 모두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A: 아니요. 적어도 한 문장 정도의 실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에서 A는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B가 이 선택의 자유를 두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많은 문장 중에서 무작위로 아무 것이나 선택하여 A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인 문장을 찾아내어 A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B가 무작위로 아무 문장이나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 문장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A는 임의의 문장이 참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 동시에 B가 모든 문장을 제시하여 이 모든 문장들이 참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문장은 거짓이라는 믿음을 A가 철회할 필요도 없다. 한편 B가 책 속에서 거짓인 문장을 찾아내어 A에게 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앞서 우리는 이런 경우 B가 자신에게 허용된 선택의 자유를 진정으로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A는 임의의 문장이 참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거짓인 문장을 제시하는 몫은 A가 아니라 대화 상대방인 B이고 B가 거짓인 문장을 제시하기 전까지 A는 두 믿음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서문의 역설은 단 하나의 거짓 문장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A가 두 믿음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any’에 대한 벤들러의 통찰, 즉 ‘any’는 사실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백지 보증서(blank warranty)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아무 문장이나 가져오더라도 참일 것이라는 백지 보증서를 채워 넣어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다. 그러나 서문의 역설은 백지 보증

서를 제시하는 사람과 채워 넣어야 할 사람이 모두 자신인 상황에서 생겨난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지 보증서를 제시할 뿐 채워 넣지는 않는 상황에서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백지 보증서를 발급하여 여기에 채워질 문장은 참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결국에는 적어도 한 문장 정도가 거짓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가 아니다. 실제로 거짓인 문장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이런 두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서문의 역설은 UG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를 보여준다. UG 규칙의 제약 사항을 일반화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서문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화를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책을 쓴 저자가 책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여 거짓인 문장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PL3]을 더 이상 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전수조사에 의한 확증이 있다면 UG 규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하지만 UG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수조사가 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의 삼각형이 특정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UG 규칙에 의해서 모든 삼각형이 그 속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한히 많은 삼각형의 형태를 전수조사해서 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서문의 역설이 생겨나는 경우와 삼각형의 경우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삼각형의 경우에는 임의의 삼각형이 갖는 속성을 갖게 될 삼각형의 사례가 무수히 많은 반면, 저자가 고려해야 할 문장의 수는 유한하다. 그렇다면 UG 규칙을 적용하는 데 예외적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필자는 이런 결론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문의 역설이라는 한 가지 사례만을 고려해 보았을 뿐이다. 임의의 당나귀, 임의의

남자 등이 등장하는 사례에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지만 UG 규칙의 예외가 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UG 규칙의 제약 사항을 일반화하는 문제는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any’와 ‘아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논리적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필자는 벤들러가 오래 전에 제시했으나 지금은 희미해진 통찰을 부활해 보고자 했다. 벤들러는 ‘any’의 논리적 특성이 일차술어논리의 양화사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신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을 ‘any’의 주요 의미로 제시하였다. 필자는 한국어 ‘아무’에 대한 분석이 벤들러의 통찰을 보다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아무’가 가리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의 대상’이란 과인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any’와 ‘아무’에 대한 필자의 분석은 보편 일반화 규칙을 적용하는 데에 보다 엄격한 제약 조건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서문의 역설이라는 철학적 문제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해 보았다.

필자의 주장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아무’에 대한 올바른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기에서 논의된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일차술어논리가 제공하는 이해 방식 때문에 ‘아무’의 논리적 성격은 숨겨져 왔다. 일차술어논리는 한 개념에 포괄되는 ‘모든 대상’과 이 개념을 구현하는 ‘구체적 대상’이라는 두 극단의 대상만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비유적으로 말해서 ‘아무’의 논리적 특성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 ‘아무’의 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두 극단 사이에 숨어 있었던 철학적 통찰을 조명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김한승 & 김명석 (2013), “두 딸의 문제에 관한 대화”, 『과학철학』 16(2), pp. 97-125.
- 남승호 (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 pp. 217-244.
- 윤영은 (2000), “‘아무’와 ‘ANY’”, 『언어』 25(3), pp. 455-476.
- 최기용 (1998), “한국어의 부정극어 ‘아무’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8(2), pp. 313-341.
- 홍민표 (2010), “부정극어와 의문문의 의미와 화용”, 『언어연구』 27(3), pp. 557-579.
- Fine, Kit (1983), “A Defence of Arbitrary Objec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57, pp. 55-77.
- Fine, Kit (1985), *Reasoning with Arbitrary Objects*, Blackwell.
- Fine, Kit (2003), “The Role of Variables”, *Journal of Philosophy* 100(12), pp. 605-631.
- LeGrand, Jean (1975), *Or and Any: The Syntax and Semantics of Two Logical Operator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adman, Nirit & Fred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pp. 353-422.
- Ladusaw, William (1983), “Logical Form and Conditions on Grammatical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6, pp. 389-422.
- Makinson, David (1965), “The Paradox of the Preface”, *Analysis* 25, pp. 205-207.
- Tennant, Neil (1983), “A Defence of Arbitrary Objects II”,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s 57, pp. 79-89.

Vendler, Zeno (1962), “Each and Every, Any and All”, *Mind* 71,
pp. 145-160.

Zwarts, Frans (1993), “The Syntax and Semantics of Negative
Polarity”, Manuscript, University of Groningen.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hanskim@kookmin.ac.kr

An Analysis of ‘Any’ and ‘Amwu’

Hanseung Kim

In First-Order Logic the English expressions, ‘any’, ‘every’, ‘all’, and ‘each’ are treated on a par but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natural language usages. Especially the expression ‘any’ is typically used only in the negative contexts, which linguists have paid attention to and attempted to provide an adequate explanation of. I shall show that the explanations so far mainly from linguists are not satisfactory and revive the philosophical insights concerning the logical features of ‘any’ provided by Zeno Vendler in 1962. I shall claim that the expression ‘any’ has what Vendler calls the ‘freedom of choice’ as its primary meaning and denotes what Kit Fine calls an ‘arbitrary object’. It will be shown that the logical features of ‘any’ are manifested more evidently in the analysis of the Korean expression ‘amwu’. I believe that this analysis has significant philosophical implications. As an instance I shall show that we can take a fresh perspective on the problem which involves the universal generalization rule and the preface paradox.

Key Words: negative polarity items, Vendler, arbitrary object, universal generalization, preface paradox